

LNK(LoveNorthKorea) 주간기도(4월24일)

1. 강제 복송된 탈북민, 조사 중 일부 사망



지난해 10 월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감옥에 수감돼 있다 강제 복송된 탈북민 200 여 명은 6 개월이 지난 현재, 대부분 교화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했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은 사람은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 보위부는 중국 공안에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종교와 관련된 행적이 자료에 적시된 경우 어떤 진술이나 해명을 해도 정치범수용소행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데일리 NK 보도 내용이다. 이들은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온성에 위치한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돼 지난 3 개월 간 탈북 경위와 중국에서의 행적, 범죄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폭행, 고문, 강제노동, 성추행, 강간 등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됐고 일부는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폭정과 죄악이 끊어지고 신음하는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또한 갇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여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 곧 죄 사함을 얻는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룸으로써 만유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하여 자신과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골로새서 1 장 13,14,20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북한을 향한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땅에서

자행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폭정 아래 신음하는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복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련단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불같은 시련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닥친 것처럼 놀라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계시될 때에 너희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베드로전서 4 장 12,13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북한의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박해 중에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최악의 고난도 최고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더 많은 성경이 전해질 기회와 길을 열어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힘 있게 퍼져가게 하옵소서. 감옥에서라도 담대히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샬롬 예루살렘 샬롬 이스라엘



“새벽에 다급한 딸의 목소리로 잠에 깨어 대사관에서 보낸 긴급 상황 문자를 확인하니, ‘2시간 후에 올 폭격에 대비하라’ 하여 3일을 방공호에서 지낼 수 있는 짐을 쌌습니다. 안심할 수 없어 뉴스를 보면서 새벽5시까지 잠을 참아가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날이 200일이나 되니 사람들은 지쳐만 갑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사이렌 소리로 들려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들도 이 전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는 아침 저녁, 때를 가리지 않고 테러가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상황속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점점 가난한 심령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유튜브에 광고를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하루에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유튜브에 복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많이 보고 사람들이 뉴스를 보다가 복음 광고가 나오면 그 광고를 클릭해서 예수님을 알게됩니다“목사님,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난한 심령이 된 것 같습니다. 영접기도가 포함된 히브리어 15분짜리 영상은 250만명이 보았고, 간증만 있는 2분 안되는 짧은 영상은 55만 명이 보았습니다. ...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전쟁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영혼 구령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자신들은 속고 있었다며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백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쟁 중에도 복음광고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대렬을 갖추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래일 그들을 향하여 진군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역대하 20 장 15 절, 17 절 말씀으로 긴 전쟁과 테러로 인한 두려움과 가난한 심령의 이스라엘의 백성,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사역자들과 성도들, 주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가장 선한길로 인도하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어 주소서

1. 위험한 가자지역에서 나와 잠시 돌봄받고 있는 무슬림 6가정 중, 1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1가정은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참된 진리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무슬림 가정들이 이 가정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등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큰 환란과 고통 중에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이 가정들을 만나주시고, 나머지 가정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참 진리와 구원에 눈이 열리게 하소서
2. 최근들어 테러와 테러시도 횡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갈등이 이스라엘 내의 아랍 시민과 유대인 간에까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잠잠해지게 하소서
3. 인질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130여명 중 약 40명만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질들이 조속히 석방되고, 테러집단 하마스를 대체할 온건한 세력이 집권하게 하소서
4. 헤즈볼라의 집중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글 검색이 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참 평화와 구원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공황사역과 전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위축되었던 지역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shalom 예루살렘, shalom 이스라엘. 주 예수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3. 디지털 기술 활용한 주민 감시 강화



“미국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 밀리초(500 분의 1 초) 안에 96%의 정확도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디지털 감시 기술에 대한 연구가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수년간 진행돼 왔다. 지난 5 년간 북한 내 감시 카메라가 급증했으며, 최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카드 형식으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지문과 사진 등록뿐 아니라 혈액 검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주민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밝혔다. 디지털 감시가 복음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확장성 있게 전파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너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수같이 고난을 당하고 사슬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다”

디모데후서 2 장 8~10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디지털 감시가 강화되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권의 뜻대로 주민의 삶을 통제하는 악행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복음 전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확장성 있게 전파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북한의 춘궁기 대책, 중국산 가축용 쌀 수입



북한 당국이 춘궁기가 시작되자 중국 동북 지역에서 쌀을 대량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들어가는 쌀이 쉽게 부서지고 곰팡이가 나거나 흙 같은 이물질이 섞여 중국에서는 가축의 먹이로 쓰이는 최하품이다. 북한의 무역 대표들은 사치품을 사들일 땐 큰돈을 써도 비싼 쌀은 안 산다고 한다. 쌀이 중요 물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식량과 복음이 보내져 북한 주민이 영육 간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받으신 이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에 따른 것이라”

에베소서 1 장 6~8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올려드립니다. 살상 무기에만 돈을 투자하고, 주민을 위해선 곰팡이가 핀 쌀을 수입하는 북한 당국의 악행을 꾸짖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신 죄사함의 복음을 북한 주민으로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이 배달돼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살림집 완공까지 돌격대 계속하라 강요



“2021 년 5 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될 때부터 돌격대로 일한 평양 주민이 한둘이 아닌데 높은 노동 강도를 견디다 못해 그만하러 하자, 일한 대가로 이미 집을 받은 돌격대원에게는 ‘당의 배려에 보답하는 게 충신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집을 받지 못한 대원에는 ‘건설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집을 받을 수 있다’며 호소 절반, 위협 절반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내용이다. 북한 주민이 당국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때맞추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 장 6, 8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국가 사업을 완성하려는 북한 권력자들의 악행을 멈춰 주옵소서. 북한 주민을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복음을 깨닫게 하사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손전화 빼돌리는 보위부 불법 행위 강도 높게 단속



북한 국가보위성이 4 월을 '비법행위 척결의 달'로 선포하고 국경 지역 보위부 대상의 강도 높은 내부 단속을 예고했다고 데일리 NK 가 전했다. 올해 1/4 분기 보위부 사업 보고에 따르면 일부 국경 지역 보위부가 중국에서 밀수된 손전화를 국고에 보관하거나 소각해야 함에도 이를 뒤로 빼돌려 국제전화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돈벌이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경을 통해 일하는 북한 주민과 일꾼들을 지켜 주시고, 남북이 자유롭게 오감으로 북녘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한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기적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전파한 것이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 함과 같다” 로마서 15 장 18~21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보위부의 도움을 받아 국경 지역에서 연락을 하고 밀수를 하는 북한 주민과 일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북의 막힌 담을 여사 자유롭게 통화하고 오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북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뿐 아니라 마을마다 교회가 다시 세워져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